

## 어머니 밥상과 사서



**도서관**은 어머니의 밥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도서관은 종합 학문의 유기체이며, 문헌정보학은 정보의 만인 공유 및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과 생산, 사회문화를 창출하는 학제성(學際性 interdisciplinarity)이 높은 종합과 학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지식과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고속도로이며 광대한 정보복합체(情報複合體)입니다.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따른 정보 불균형이나 정보공백 등의 유무를 찾아 정보 결핍을 보양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는 정성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으로 고마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면 도서관의 마음은 봉사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하나 영양이 불균형할까 이리보고 저리보고 하면서 어떤 때는 다독거리면서 가족에게 고루 영양을 섭취하라고 당부하시기도 하지요. 성장한 후 분가를 하고서도 어머니 밥상이 간절한 것은 고향 맛이 담뱃 담겨있는 사랑과 정성의 그리움일 것입니다.



**이 석 기**

부산대학교도서관 사서  
cyberlee@pusan.ac.kr

도서관은 교양에서 전공까지 다양한 책을 구비하며 지식의 맛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의 밥상을 받는 것처럼, 도서관은 어머니의 구수한 된장과 다양한 식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지식의 보고이지요. 어머니의 밥상은 그냥 맨 밥에 손수 끓인 된장만으로도 거뜬히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힘을 써야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불혹의 나이가 넘어서게 되면서 점점 더 어머니의 밥상과 정보의 욕구를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족 모두 건강을 잃을 확률이 높으며 가족의 건강은 어머니의 밥상에서 나오듯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의 힘은 정보복합체인 도서관에서 나옵니다.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 건립과 사서 직종의 세분화, 전문화 소식은 사서 후배들에게는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 기반이 튼튼해 졌다는 반증이지요. 자율성과 다양성이 강조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6세대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 되어가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 우리 도서관 구성원의 역량이 뛰어나며, 그 과정은 참 역동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사서는 누구입니까?

도서관이란 정보복합체(情報複合體)에서 정보의 전달자이며, 생산자이기도 합

니다.

Katz는 '훌륭한 사서는 훌륭한 인간이어야 한다'고 사서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Shera는 '이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할 수 있는 학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사서의 모습은 다양한 학제성을 기초한 학자와 인간성을 갖춘 식견있는 '든사람',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어 됴됨이가 바른 '된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서의 길은 한가지 지식의 습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인간적인 포용성을 가지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어야 유능한 사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전문직이라 외쳐보아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낙관적으로 옛날 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훨씬 많아지고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경제성을 느끼게 됴므로써 사서 직업군에 대해 대중의 인식이 전보다 좋은 호응을 얻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은 사서직에 대한 비전과 현실, 내적 역량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는 'I자형 인간' 대신에 'T자형 인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T자의 세로 방향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의미하고, 수평 방향은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제 해결능력 등을 나타냅니다.

‘T자형 인간’의 모형은 사서의 모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가지 전공만 열심히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전공을 바탕으로 다른 두 가지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학제성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 봉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우리 사서 직업의 특성에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제성에서 전문지식과 지식을 생산하며 제공하는 사람이 ‘T자형 인간’이며,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많이 알고 따뜻한 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자형 인간’입니다.

‘+자형 인간’은 되지 아니 하더라도 ‘T자형 사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자는 21세기에는 ‘T자형 인간’보다 ‘+자형 인간’이 성공한다고 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스페셜리스트와 저널리스트, 휴머니스트의 3박자를 골고루 갖춰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 저널리스트는 기고자, 정보의 생산자, 휴머니스트는 인도주의자를 말합니다.

‘T자형 사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부단히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또한 ‘T자형 사서’가 되어야 직업적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서관 사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을 기반으로 ‘T자형 인간’, ‘+자형 인간’이 되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서는 지식기반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하고, 정보이용의 평등성, 이용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사서들은 내적 다양성과 전문성, 생산성을 확보하고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 자문자답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양가 있는 밥상을 차리고 있는지, 또한 이용자 중심의 봉사를 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보면서, 종합학문을 배웠다는 것에 대한 자아의 성찰과 그래도 희망인 도서관 이용자를 짝사랑하는 심정으로 도서관에 애정어린 눈길을 보냅니다. (㉞)

